

7/4/21

설교 제목: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피 재앙)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7장 1-25 절

(출 7: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출 7:2)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출 7:3)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출 7:4)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 7: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출 7: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출 7: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이었고 아론은 팔십삼 세이엇더라

(출 7: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7: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출 7: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출 7:11)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출 7: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출 7: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 7: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출 7:15)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출 7: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출 7: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불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출 7:18)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출 7: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출 7: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출 7:21)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출 7:22)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 7:23)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출 7:24) 애굽 사람들은 하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출 7:25)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칠 일이 지나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대로 애굽 왕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고 하며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가중시키고 핍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선 출애굽은 커녕 노역만 가중된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등을 돌립니다.

바로와의 대면에서 실패하고 자기 민족에게까지 등돌림을 당한 모세는 좌절하고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절규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힘을 실어 주십니다.

(출 7: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출 7:2)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은 '엘로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모세에게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형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붙여 줄실 때였습니다.

(출 4:46)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 10:34)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적 권능도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땅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비록 바로의 땅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찌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은 모세의 권세를 당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클지라도 하늘의 권세를 부여받은 우리의 권세를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많은 표징과 이적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하시며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을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칭하십니다.

(출 7:3)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출 7:4)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출 7:5)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라고 칭하심으로 앞으로 벌어질 전쟁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애굽 곧 사탄의 세력과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세력 간의 싸움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세력이 승리함으로 종결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런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애굽과 싸울지라도 하나님의 이적적인 권능이 애굽을 압도하며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선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 싸움은 결국 우리의 승리로 종결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이적적인 권능이 압도하며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들은 불순종을 씻어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 바로에게로 나아갑니다.

모세의 나이 팔십입니다.

(출 7:6)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출 7:7)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팔십 세이었고 아론은 팔십삼 세이엇더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출 7: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 7:9)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출 7:10)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출 7:11)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출 7:12)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출 7:13)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퍅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한 것은 당시 애굽의 관습에 기인한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이 신이 보낸 자라고 주장하려면 그 증거로 자신을 보낸 신의 능력을 증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이적을 행하게 함으로써 바로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의 지팡이를 삼키게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탄으로 대변되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종 삼고 사망으로 왕 노릇 하였으나 이제는 이김의 삼킨 바가 될 것입니다.

(고전 15: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 된 말씀이 응하리라

그럼에도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완악하여 당신의 영을 거역하는 바로에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인 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첫 번째 피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아침에 나일 강으로 나온 바로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 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출 7: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출 7:15)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출 7:16)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출 7:17)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불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출 7:18)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바로는 매일 아침 나일 강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나일강 숭배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하나님은 첫 재앙으로 애굽인들이 축복의 근원으로 신격화 하던 나일 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뿌리부터 뒤흔었습니다.

피 재앙은 거짓 신의 실체를 여실히 밝히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자 우상 종교에 대한 파멸의 심판이요 피조물을 숭상하는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경고의 심판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피 재앙이 내려집니다.

(출 7:1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출 7:20)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출 7:21)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제 나일 강은 더 이상 생명과 축복을 주는 강이 아니라 죽음과 더러움을 토해내는 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강박하여 그 일에 관념치 않았습니다.

(출 7:22)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 7:23)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출 7:24) 애굽 사람들은 하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출 7:25)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칠 일이 지나니라

바로는 애굽의 술객들이 이같은 일을 흉내내는 것을 보고 이 이적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 재앙은 칠 일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7 은 완전 수이고 승리의 수입니다.

따라서 피 재앙이 7 일 동안 계속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애굽인들이 극심한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은 앞으로 애굽 전역에서 일어나게 될 죽음에 대한 전주곡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은 피로 시작하여 피로 끝을 맺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를 대표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물로 피가 되게 했고 주님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고후 3:6)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인인 인간은 결코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아 영생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